『세계정치 9』 제29집 1호, 2008년 봄 · 여름

01

서장

지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

김상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정치학 박사

주요 논저

『인터넷 권력의 해부』(2008, 편저)

『정보화시대의 표준경쟁: 윈텔리즘과 일본의 컴퓨터산업』(2007)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2006, 공편저)

Contents

1 머리말

2 지식네트워크의 개념과 유형

3 지식네트워크의 구성요소와 아키텍처

4 지식네트워크의 권력메커니즘

5 본 특집호의 구성

현재 변환을 겪고 있는 21세기 세계정치가 보여주는 특징 중의 하나로 다양한 형태의 지식네트워크가 기존의 국민국가나 다국적 기업에 비견되는 새로운 세계정치의 행위자로서 부상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들 지식네트워크 행위자들은 최근 지구화와 정보화, 특히 인터넷의 확산에 힘입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면서 21세기 세계정치에서 그 영향력을 증대시켜 가고 있다.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특별히 지식네트워크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위계적 조직'이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독특한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의 특성을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권력자원으로서의 지식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점도 세간의 관심이 지식네트워크에 쏠리는 요인이다. 이 글은 '네트워크 세계정치(the world politics of networks)' 또는 '망제정치(網際政治, inter-network politics)'의 시각에서 지식네트워크의 개념과 유형, 구성요소와 아키텍처, 그리고 그 권력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제어
지식, 네트워크, 권력, 정보화, 지구화, 인터넷, 세계정치

1. 머리말

현재 변환을 겪고 있는 21세기 세계정치가 보여주는 특징 중의 하나로 다양한 형태의 '지구 지식네트워크(global knowledge networks)'가 기존의 국민국가나 다국적 기업에 비견되는 새로운 세계정치의 행위자로서 부상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행위자들의 사례로는 지구 시민사회의 초국적 옹호네트워크(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 TAN), 외교안보나 국제개발 분야의 정책지식을 둘러싼 싱크탱크(think tank) 네트워크, 에이즈(AIDS)·결핵·말라리아 등과 같은 질병퇴치를 위한 지구 공공정책 네트워크(global public policy network, GPPN), 전문가나 과학자들의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 형태를 띠는 환경 분야의 지식네트워크,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과 같은 국제엘리트 네트워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지식네트워크 행위자들은 최근 지구화와 정보화, 특히 인터넷의 확산에 힘입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면서 21세기 세계정치에서 그 영향력을 증대시켜 가고 있다.

지구화와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도 국제정치에서 일국 차원

을 넘어서는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활동이 없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러한 초국적 행위자의 부상은 오늘날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역사적으로도 그 형태와 내용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존재해 왔다. 국제정치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지식네트워크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자. 먼저 근대 초기 동아시아에 진출했던 예수회 선교사들의 네트워크나 식민지 팽창과정에서 발견되는 서구 국가들의 동인도회사 네트워크는 근대 국제정치의 전 세계적 전파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사례들이다. 또한 20세기 국제정치에서 영국의 채텀하우스(Chatham House)나 미국의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전 세계적으로 구축한 지식네트워크는 영국과 미국이 '제국'으로 행세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각종 학파의 네트워크나 유태인·화교 등의 민족 네트워크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식네트워크로 이해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이밖에도 국제정치의 역사에는 지식네트워크로서 파악되는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이다.[1)]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특별히 지식네트워크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존 연구의 경우처럼 비(非)정부 행위자

---

1) 예수회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에드몽 파리, 『예수회의 비밀역사』(말씀보존학회, 1999); Jonathan Wright, *God's Soldiers: Adventure, Politics, Intrigue, and Power: A History of the Jesuits* (Image, 2005); 동인도회사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James D. Tracy(ed.), *The Rise of Merchant Empires: Long-distance Trade in the Early Modern World, 1350~1750*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James D. Tracy(ed.), *The Political Economy of Merchant Empires: State Power and World Trade, 1350-1750*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아사다 미노루, 『동인도회사: 거대 상업제국의 흥망사』(피피에, 1989); 하마우즈 데쓰오, 『대영제국은 인도를 어떻게 통치하였는가: 영국 동인도회사 1600~1858』(심산, 2004); 20세기 제국의 지식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민병원, 「인지공동체와 제국의 지식네트워크: 채텀하우스와 외교협회의 사례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9(2),(2005), pp.255~275. 한편 역사적인 맥락에서 동아시아 차원의 지식네트워크를 살펴본 연구로는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동아시아 경제문화 네트워크』(태학사, 2007)를 참조.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라고 하거나 또는 지구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 GCS) 정도로 부르지 않고, 굳이 지식네트워크라고 새로운 이름을 끌어들여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부르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새로운 이름이 필요한 이유는 예전의 이름으로 불러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현상 자체의 새로움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새로움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대답을 펼치기에 앞서 지식네트워크라는 말에 담긴 '지식'과 '네트워크'라는 용어 그 자체의 의미를 짚어보는 것이 지식네트워크 행위자에 주목하는 이유를 미리 엿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지식네트워크라는 행위자에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독특한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의 특성을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식네트워크는 기존에 우리가 국제정치에서 보아왔던 위계적 조직(hierarchical organization)이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horizontal network)의 형태를 띠는 행위자가 부상하는 사례다. 네트워크 이론에 따르면, 조직과 네트워크는 그 아키텍처나 작동방식에 있어서 크게 구별된다. 위계적 아키텍처를 갖는 조직과는 달리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는 수평적이다. 조직의 작동방식이 각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한다면, 네트워크의 각 구성요소들은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 위계적 조직에서는 어느 한 구성요소의 제거가 조직체계 전체의 작동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수평적 네트워크에서는 어느 노드(node)와 링크(link)가 잘려 나가더라도 네트워크 전체가 붕괴되는 일은 없다. 손상된 노드와 링크를 복구하면 그만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지식네트워크의 부상은 수평적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지니는 행위자들이 세계정치의 전면에 나

서 기존의 위계적 조직들과 경쟁하게 된 사례다.[2)]

지식네트워크의 부상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술·정보·지식(이하 통칭하여 지식)의 발달이 새롭게 창출한 물적·지적 조건의 출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앞서 언급한 네트워크로서의 특성을 지니는 행위자들은 최근 정보화의 진전, 특히 지구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해서 출현했다. 특히 탈집중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면서도 나름대로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작동하는 행위자들이 부상하는 현상의 저변에는 IT(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에 따른 물리적 네트워크, 특히 인터넷의 존재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다. 사실 지구 미디어가 발달하고 유무선의 인터넷이 보급된 커뮤니케이션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지금처럼 활성화된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활동을 설명할 수는 없다.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지구 어느 곳에나 미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들 네트워크 행위자들은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지식을 생산하며, 더 나아가 상호 교감과 행동의 공조를 이루게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묻혀버렸을 온갖 정보들이 인터넷을 타고 돌아서 흩어져 있던 노드들을 엮어내고, 결국에는 기성의 권력에 도전하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3)]

---

2)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소개로는 다음을 참조. Manuel Castells, "Informationalism, Networks, and the Network Society: A Theoretical Blueprint", Manuel Castells(ed.),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heltenham, UK: Edward Elgar, 2004), pp.3-48; John Arquilla and David Ronfeldt(eds.), *Networks and Netwars: The Future of Terror, Crime, and Militancy* (Santa Monica, CA: RAND, 2001); A.L. 바라바시, 『링크: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동아시아, 2002); 던컨 왓츠, 『Small World: 여섯 다리만 건너면 누구와도 연결된다』(세종연구원, 2004); 마크 뷰캐넌, 『넥서스: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세종연구원, 2003); 김용학, 『사회 연결망 이론』 개정판(박영사, 2007).

3) 인터넷과 지식네트워크 형태를 띠는 지구 사회운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Ronald J. Deibert, "Altered Worlds: Social Forces in the Hypermedia Environment", in Cynthia J. Alexander and Leslie A. Pal(eds.), *Digital Democracy: Policy and Politics in*

그런데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지식 변수의 중요성은 이상에서 언급한 바대로 지식네트워크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는 '환경적 변수'로서의 의미를 넘어선다. 다시 말해, 지식이라는 변수는 지식네트워크라는 행위자가 21세기 세계정치에서 행세할 수 있게 하는 '구성적 변수'의 의미를 갖는다. 사실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지식과 네트워크는 궁합이 잘 맞는 한 쌍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식 변수는 네트워크 행위자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지식은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힘의 원천이다. 즉 권력자원의 원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식네트워크는 전통적인 행위자들처럼 폭력이나 금력(金力)에만 의존하는 행위자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권력자원으로서의 지식력에 기반을 두고 전통 세력에 도전하는 행위자다. 또한 권력의 작동메커니즘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지식네트워크가 발휘하는 권력은 행위자의 속성이나 자원에만 기반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지식네트워크의 권력은 노드들이 구성하는 '관계', 즉 네트워크의 맥락에서 우러나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지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는, 물질적 권력자원을 바탕으로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전통적인 권력정치와는 달리, 지식 자원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비(非)제로섬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지식을 매개로 한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부상은 21세기 세계정치의 '제3의 행위자'라고 거론될 정도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탄력을 받고

---

the Wired World (Toronto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23~45; Peter Cukor and Lee W. McKnight, "Knowledge Networks, the Internet, and Development",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Working Paper(2001); Edward Comor, "The Role of Communication in Global Civil Societ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5(2001), pp.389~408; 조현석, 「인터넷과 글로벌 사회운동의 세계정치」, 김상배 편, 『인터넷권력의 해부』(한울, 2008), pp.282~308.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국민국가나 기업 행위자를 완전히 대체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지구화와 정보화의 맥락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노드로 하는 네트워크 행위자들이 출현하고 있는 것과 병행해서 전통적인 국제정치 행위자들이 네트워크화되는 현상도 만만치 않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의 지구 네트워크가 생산과 금융 및 무역의 분야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벌써 오래된 일이다. 또한 국가 행위자들도 기존의 국민/민족(nation)의 경계를 넘어서 네트워크의 형태로 변환(transformation)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21세기 세계정치의 양상은 국가나 기업, 그리고 개인과 시민사회의 집단들을 허브로 하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경합을 벌이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야말로 '네트워크 세계정치(the world politics of networks)' 또는 '망제정치(網際政治, inter-network politics)'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4]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최근 세계정치의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지식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4) 지식네트워크의 부상을 넘어서는 네트워크 세계정치 전반에 대한 분석은 이 글이 설정하고 있는 논의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면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네트워크 세계정치 또는 망제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Gavin Kendall, "Global Networks, International Networks, Actor Networks", Wendy Larner and William Walters(eds.), *Global Governmentality: Governing International Spaces* (New York: Routledge, 2004), pp.59~75; Joseph MacKay, "State Failure, Actor-Network Theory, and the Theorisation of Sovereignty", *BSI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3(2006), pp.59~96; 김상배, 「복잡계이론과 네트워크 세계정치론」, 삼성경제연구소 복잡계 심포지엄 발표논문, (2006.12). 네트워크국가에 대해서는 Martin Carnoy and Manuel Castells, "Globalization, the Knowledge Society, and the Network State: Poulantzas at the Millennium", *Global Networks,* 1(1), (2001), pp.1~18; 하영선 · 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을유문화사, 2006).

특히 지식네트워크의 개념이 아직 학계에 생소한 점을 감안하여 그 개념의 기본적 요소와 향후 연구주제들을 개괄적으로 짚어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2절에서는 지식네트워크를 다룬 기존 연구의 검토를 겸해서 지식네트워크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았다. 본 특집호에서 다룬 여섯 가지 지식네트워크는 바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이들 지식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와 링크는 무엇이며 이렇게 구성된 네트워크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지식네트워크가 갖게 되는 아키텍처의 기본 특징을 세 가지 모델로 구분하였다. 4절에서는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지식네트워크가 발휘하는 권력메커니즘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식네트워크의 권력을 단위와 과정 및 체제의 차원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권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끝으로 5절에서는 본 특집호에 수록된 여섯 논문들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소개하였다.

2. 지식네트워크의 개념과 유형

'지식네트워크(knowledge network)'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지식네트워크란 지식의 공유를 바탕으로 인식이나 실천을 같이하는 집단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네트워크의 개념과 관련하여, 다이엔 스톤(Diane Stone)과 사이먼 맥스웰(Simon Maxwell)은 다음과 같이 상술하고 있다. "지식네트워크는 구체적인 주제를 둘러싸고 조직된 전문기관, 학회, 과학공동체로 구성된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의 개인적·제도적 가입은 전문지식에 대한 승인뿐만 아니라 학자적 자질과 과학

적 신뢰성을 증명하는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식네트워크의 주된 동기는 지식의 창출과 발전 및 공유와 확산, 그리고 간혹 그러한 지식을 정책화하여 실천에 적용하는 데 있다".[5] 이를 쉽게 풀어서 이해하면, 지식네트워크는 지식을 수단과 목적으로 해서 지식인들이 형성하는 네트워크다. 동어반복처럼 들리겠지만, 지식네트워크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축은 역시 '지식'과 '네트워크'다.

이 절에서는 우선 '지식'에 초점을 두어 지식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를 풀어가 보자. 지식네트워크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되는 것은 '어떠한 지식'을 둘러싸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느냐의 문제다. 스톤과 맥스웰의 설명은 주로 전문지식을 둘러싼 네트워크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정치의 변화를 고려할 때, 그 지식이 반드시 전문가들만의 지식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최근 세계정치에서 지식네트워크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전문지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상적인 지식이나 또는 실천적 함의를 강하게 지니는 지식 등을 둘러싼 다양한 네트워크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이나 휴대폰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확산은 이러한 다층적인 지식을 둘러싼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실제로 '지식(知識, knowledge)'이라는 용어는 학술 개념이 아니라 일상용어이기 때문에 지식네트워크라는 말도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6] 따라서 지식네트워크에 대한 섣부른 개념 정의를 내리려

---

5) Diane Stone and Simon Maxwell(eds.), *Global Knowledge Network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Bridges Across Boundaries* (Oxford: Routledge, 2005), p.11.

6) 21세기 세계정치의 맥락에서 접근한 지식의 개념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김상배 외, 『지식질서와 동아시아: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한울, 2008)

하기보다는 오히려 '유형학적 분석틀(characterological framework)'을 통해서 그 개념에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스톤과 맥스웰의 연구도 쟁점이나 이데올로기, 구성스타일, 정책에의 관여 형태 등을 기준으로 지식네트워크를 분류하는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8] 그러나 이 글에서는 지식네트워크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지식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서 그 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식네트워크는 ① 전문지식 네트워크, ② 정책지식 네트워크, ③ 운동지식 네트워크 등과 같은 세 가지 층위로 구분된다. 물론 각 층위는 상호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구별해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첫째,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지식 네트워크'다. 이러한 전문지식 네트워크를 대별해 보면 기술지식 네트워크와 과학지식 네트워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대 과학기술 분야에서 기술과 과학을 둘로 구분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식네트워크의 현황을 보면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먼저, 기술지식 네트워크로는 기술혁신을 위한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연구개발(R&D) 컨소시엄, 첨단기업들의 기술제휴, 기술개발을 위한 군

---

7) 유형학적 분석틀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로는 다음을 참조. Jacques Ellul, *The Technological Society* (New York: Alfred A. Knoft, 1964); Carl Mitcham, *Thinking through Technology: The Path between Engineering and Philosoph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pp.153~154.; I.C. Jarvie, "Technology and the Structure of Knowledge", in Carl Mitcham and Robert Mackey(eds.), *Philosophy and Technology: Readings in the Philosophical Problems of Techn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1972), pp.54~61.

8) Stone and Maxwell(eds.), (2005), p.12.

- 산 - 학 복합체, 기술표준의 형성을 위한 기업이나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식네트워크들은 지리적으로 군집해 있는 클러스터(cluster)의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최근 인터넷 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버추얼(virtual) 형태의 네트워크로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인터넷은 다양한 종류의 기술혁신 활동을 하는 기술지식 네트워크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리눅스(Linux)와 같이 소스코드(source code)를 공개하는 소프트웨어의 기술혁신을 위해서 형성되는 온라인 혁신네트워크(또는 공동체)를 들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위키피디아(Wikipedia) 등과 같은 온라인 백과사전의 집필을 위해서 형성된 '대중협업(mass collaboration)'의 네트워크도 이해할 수 있다. 본 특집호에서는 김웅희 교수의 논문 「기술지식 네트워크의 세계정치: 리눅스와 위키피디아의 사례」에서 이러한 층위에서 형성되는 기술지식 네트워크를 비교·분석하였다.[9] 이러한 기술지식 네트워크는 경제 분야의 네트워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본 특집호에 실린 이승주 교수의 논문 「지식과 지구생산 네트워크: 동아시아의 사례」는 생산 분야의 네트워크 형성에 지식

9) 기술지식의 생산을 위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Janice Gross Stein(et al.), *Networks of Knowledge: Collaborative Innovation in International Learning*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1); Rob Cross, Andrew Parker, and Lisa Sasson(eds.), *Networks in the Knowledge Econom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Daniele Archibugi, Jeremy Howells, and Jonathan Michie(eds.), *Innovation Policy in a Glob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한편 공개 소프트웨어와 위키피디아의 오픈소스 모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Steven Weber, *The Success of Open Sour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김상배, 「공개 소프트웨어와 표준경쟁의 세계정치: 리눅스(Linux)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1), (2005, 봄), pp.365~387; 배영자, 「계몽주의 백과전서와 위키피디아」, 김상배 편, 『인터넷권력의 해부』(한울, 2008), pp.67~90.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10]

이에 비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지식 네트워크로서 좀 더 많이 알려진 것은 흔히 인식공동체라고 불리는 과학지식 네트워크다. 인식공동체는 과학에 대한 보편적 인식(즉 episteme)을 공유하는 과학자나 전문연구자들의 네트워크다. 이는 순수하게 학술적인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실제의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공동체는 정부나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독립적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인식공동체는 행동의 원리에 가치를 부여하는 규범, 인과적 신념과 전문적 판단, 간(間)주관적(inter-subjective)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공통의 관념, 그리고 공통의 정책구상 등을 공유한다.[11]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로는 환경 분야의 인식공동체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인식론과 방법론을 공유하는 다양한 학파의 네트워크도 이러한 인식공동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12]

---

10) 금융과 생산 및 무역 분야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Dieter Ernst, "Carriers of Cross-Border Knowledge Diffus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Global Production Networks", *East-West Center Working Papers*, 3 (June 2000); 이왕휘, 「세계금융 중심도시 네트워크」, 하영선 · 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을유문화사, 2006), pp.278~311; 배영자, 「정보혁명과 지구 생산 네트워크」, 하영선 · 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을유문화사, 2006), pp.312~346; 조화순, 「정보화시대의 지구무역 네트워크」, 하영선 · 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을유문화사, 2006), pp.247~277; 한편 IT분야에서 형성되는 지식문화 네트워크를 다룬 연구로는 다음도 유용하다. Anna Greenspan, 『인도와 IT혁명: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11) Diane Stone, "Knowledge Networks and Global Policy", Diane Stone and Simon Maxwell (eds.), *Global Knowledge Network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Bridges Across Boundaries* (Oxford: Routledge, 2005), p.94.

12) 인식공동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Peter M. Haas(ed.), *Knowledge, Power,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A Special Issu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1) (Winter, 1992); Emanuel Adler, *Communitari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Epistemic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

둘째, '정책지식 네트워크'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식네트워크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형태다. 앞서 언급한 기술혁신 네트워크나 과학 분야의 인식공동체는 일종의 기술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에 기반을 두고 지식 그 자체의 생산과 전파에 목적을 두고 시발된 지식네트워크다. 이에 비해, 이 글에서 구분한 두 번째 층위의 정책지식 네트워크는 이미 생산된 지식의 전파나 실천적 적용을 염두에 두고 형성된 지식네트워크다. 스톤에 의하면,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담론'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지식 네트워크는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엘리트 차원에서 형성되는 '담론연합(discourse coalition)'과 민간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배태된 지식네트워크(embedded knowledge network)'의 둘로 나누어진다.[13]

먼저 정책담론을 공유하는 담론연합은 언어, 상징, 관념, 정책구상 등을 둘러싸고 형성된 전문가 그룹들의 초국적 담론공동체(transnational discourse community)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공공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국 차원에서 정책담론에 대한 견해를 펼쳤다면 이제는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서 국제적·지역적 이슈에 관여하게 되었다. 정책결정자나 여론형성자 등과 같은 엘리트들이 법률적·경제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경영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담론연합의 대표적인 사례는 국제개발 네트워크(Global Development Network, GDN)처럼 국제개발의 이슈를 둘러싼 국제엘리트들의 지식네

Emanuel Adler and Steven Bernstein, "Knowledge in Power: The Epistemic Construction of Global Governance", Michael Barnett and Raymond Duvall(eds.), *Power in Global Gover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294~318; 한편 학파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Randall Collins, *The Sociology of Philosophies: A Global Theory of Intellectual Chan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13) Stone(2005), pp.94~99.

트워크를 들 수 있다.[14] 또한 본 특집호에 수록된 박인휘 교수의 논문 「정책 지식 네트워크의 세계정치: 외교안보 싱크탱크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외교안보 분야의 싱크탱크 네트워크도 이러한 담론연합의 사례다.[15] 한편 본 특집호의 조동준 교수의 논문, 「정부 네트워크와 지식네트워크: G6/G7과 통화주의의 결합」은 이러한 담론연합이 국제기구 차원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에 비해 '배태된 지식네트워크'는 소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관념을 생산·유통하는 비공식적인 지식네트워크를

---

14) 담론연합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Hans Krause Hansen, Dorte Salskov-Iversen, and Sven Bislev, "Transnational Discourse Communities: Globalizing Public Management", R. Higgott and M. Ougaard(eds.), *Understanding the Global Polity* (London: Routledge, 2002); 국제개발의 이슈와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도 유용하다. Frederick Cooper and Randall Packard(eds.),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he Social Sciences: Essays on the History and Politics of Knowledg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국제개발 분야의 담론연합의 사례에 피에르 브루디외(Pierre Bourdieu)의 사회이론을 원용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Yves Dezaley and Briant G. Garth, *Dealing in Virtu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 Transnational Legal Order* (Chicago, IL: Chicago University Press, 1996); Yves Dezaley and Briant G. Garth,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alace Wars; Lawyers, Economists, and the Contest to Transform Latin American States* (Chicago, IL: Chicago University Press, 2002).

15) 싱크탱크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이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작업들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Diane Stone and Andrew Denham(eds.), *Think Tank Traditions: Policy Research and the Politics of Ideas*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4); Diane Stone, Andrew Denham, Mark Garnett(eds.), *Think Tanks Across Nations: A Comparative Approach*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8); Diane Stone, *Capturing the Political Imagination: Think Tanks and the Policy Process* (Frank Cass Publishers, 1996); Andrew Rich, *Think Tanks, Public Policy,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James A. Smith, *The Idea Brokers: Think Tanks and the Rise of the New Policy Elite* (New York: Free Press, 1991); Donald E. Abelson, *Do Think Tanks Matter? Assessing the Impact of Public Policy Institutes* (Montreal & 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2); 정서환,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싱크탱크』(모색, 1997); 고바야시 히데오, 『만철(滿鐵): 일본제국의 싱크탱크』(산처럼, 2004); 강원택 · 박인휘 · 장훈, 『한국적 싱크탱크의 가능성』(삼성경제연구소, 2006).

지칭한다. 이러한 '배태된 지식네트워크'는 흔히 민간기관의 외양을 취하는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술합리적 전문지식을 다룬다는 이미지를 생산·확산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지적 권위를 세우는 전략을 꾀한다. 실제로 지구화된 민간엘리트들이 참여하는 전문학회, 연구재단, 연구소, 컨설팅회사 등이 제시하는 전문적 견해는 해당 분야에서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식네트워크의 힘을 느끼게 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90년대 후반 소위 IMF경제위기 기간에 주목을 받았던 무디스(Moody's)나 스탠더드 앤 푸어스(Standard and Poor's)와 같은 신용평가기관의 역할이다.[16] 스톤에 의하면, 이들 '배태된 지식네트워크'들은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가 말하는 소위 '진지전(the war of position)'을 벌이는 지구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이라고 한다.[17]

끝으로 정책지식 네트워크의 지배담론에 대항하는 성격을 지닌 '운동지식 네트워크'를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운동지식 네트워크는 기성 패권의 인식론과 담론에 대한 대항패권(counter-hegemony)을 모색한다.[18] 이들 운동지식 네트워크들은 앞서의 전문지식이나 정책지식 분야의 네트워크에 비해서 좀 더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지식을

16)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Timothy J. Sinclair, "Reinventing Authority: Embedded Knowledge Networks and the New Global Finance",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18(4), (2000), pp.487~502; Timothy J. Sinclair, *The New Masters of Capital: American Bond Rating Agencies and the Politics of Creditworthines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17) Stone(2005), p.97.

18) 신그람시주의의 전통에서 벌인 패권과 대항패권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Mark Rupert, "Globalizing Common Sense; A Marxian-Gramscian (re-)vision of the Politics of Governance/Resistanc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9(December, 2003), pp.181~198; Stephen Gill, *Power and Resistance in the New World Order* (New York: Palgrave, 2003).

생산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지구 시민사회의 행동주의(activism)와 연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운동지식 네트워크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본 순수한 지식네트워크라기 보다는 오히려 행동네트워크에 가깝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들 운동지식 네트워크를 지식네트워크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운동지식 네트워크를 넓은 의미에서 본 지식네트워크의 사례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다층화되고 있는 지식의 개념적 확장에 비추어 볼 때 지식네트워크와 행동네트워크가 중첩되는 영역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이다. 이들 운동지식 네트워크는 초국적 옹호네트워크(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 TAN)와 지구 공공정책 네트워크(global public policy network, GPPN)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지구 시민사회운동의 형태를 띠는 '초국적 옹호네트워크'는 주로 NGOs와 행동주의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정보의 교환을 통해서 공유된 가치나 원칙화된 신념, 그리고 공유된 담론을 매개로 하여 결속된다는 점에서 지식네트워크다. 그런데 이들이 동시에 옹호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이유는 타자들의 권익 보호를 옹호하거나 대의명분을 방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19] 실제로 초국적 옹호네트워크는 공적인 토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구적 정책의제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제시한다. 노예제 폐지나 후진국의 부채탕감 등을 둘러싼 지구적 이슈에 대해서 초국적 캠페인을

19) 초국적 옹호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argaret Keck and Sikkink, Kathryn, *Activists Beyond Borders: Advocacy Networks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Mario Diani and Doug McAdam, *Reframing Public Policy: Discursive Politics and Deliberative Practi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Donatella Della Porta and Lorenzo Mosca, "Global-net for Global Movements? A Network of Networks for a Movement of Movements", *Inl Publ Pol,* 25(1), pp.165~190.

벌이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 초국적 옹호네트워크가 앞서의 담론연합과 구별되는 특징은 정책결정 과정에 통합되지 못하고 아웃사이더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초국적 옹호네트워크는 21세기 '제국(empire)'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와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가 제시한 다중(多衆, multitude)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크다.[20] 다중으로서의 초국적 옹호네트워크는 지구화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반(反)세계화, 환경, 인권, 기아퇴치, 여성 등의 분야에서 21세기 세계정치의 전면으로 급부상하고 있다.[21] 본 특집호에서는 정연정 교수의 논문 「지구 시민지식 네트워크: 노인·기아·인권 분야의 사례」가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한편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지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 분야의 각종 네트워크나 유태인이나 화교들이 형성하는 이민자들의 네트워크, 더 나아가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의 구성과 작동에서도 지식네트워크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있다.[22]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초국적 옹호네트워크가 극단화된 형태로서 대항패권의 기치와 종교적

---

20) 21세기 제국과 다중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 *Empi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 *Multitude: Wa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Empire* (New York: Penguin Press, 2004); 질 들뢰즈 외, 『비물질노동과 다중』(갈무리, 2005).

21) 반세계화 운동에 대한 복잡계이론을 적용한 다음의 연구는 눈여겨 볼만한다. Graeme Chesters and Ian Welsh, *Complexity and Social Movements; Multitudes at the Edge of Chao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6).

22) 문화 분야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민병원, 「네트워크시대의 문화세계정치」, 하영선·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을유문화사, 2006), pp.442~479; 김상배, 「한류의 매력과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세계정치』 28(1), (2007, 봄·여름), pp.190~233; 이민자들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Yossi Shain and Aharon Barth, "Diaspora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57(Summer 2003), pp.449~479.

신념을 내걸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지구 테러 네트워크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23]

이에 비해 '지구 공공정책 네트워크'는 지구적 공공재를 다루기 위해서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의 삼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초국적 옹호네트워크와 다르다.[24]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의 질병퇴치와 같이 지구 공공정책 네트워크가 다루는 공공정책 이슈들의 초국적 성격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력하는 명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주체에 대해서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부여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구 공공정책 네트워크는 정책코드를 공유하는 준(準) 공공정책 공동체(quasi-official policy communities) 또는 준(準) 조합주의적 동맹(quasi-corporatist alliance)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류산업 파트너십(Apparel Industry Partnership), 말라리아 퇴치 이니셔티브(Roll Back Malaria Initiative), ISO 14000 프로세스, 지구 환경 패컬티(Global Environment Facility) 등과 같은 정부기관 - 국제기구 - 시민사회 네트워크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본 특집호에서는 신상범 교수의 논문, 「지구환경정치와 지식네트워크: 중국의 ISO 14001 사례」가 이러한 종류의 지식네트워크가 환경 분야의 세계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이상의 세 가지 층위에서 개념화한 여섯 가지 유형의 지식네트워크들

---

23) 테러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arc Sageman, *Understanding Terror Network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4); 신성호, 「정보혁명과 지구테러 네트워크」, 하영선 · 김상배 편,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을유문화사, 2006), pp.176~206; 전재성, 「인터넷, 테러네트워크, 네트워크 국가」, 김상배 편, 『인터넷 권력의 해부』(한울, 2008), pp.309~335.

24) 지구 공공정책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Wolfgang Reinicke and Francis Deng(et al.), *Critical Choices: The United Nations, Networks and the Future of Global Governance* (Ottaw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2000).

은 21세기 세계정치에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엄밀하게 보면 그 성격상 지식네트워크라고 부르기에는 어색한 여타 네트워크 행위자들도 그 기저에는 지식네트워크의 메커니즘을 깔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네트워크는 그 자체의 부상이 지니는 의미뿐만 아니라 세계정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차원에서 좀 더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주제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21세기 세계정치의 시각에서 지식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아직도 맹아 단계에 놓여 있는 국내외의 연구현황을 염두에 둘 때, 지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와 관련하여 짚어보아야 할 연구과제는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다음 절에서는 이들 지식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작동하는가의 문제를 살펴보자.

3. 지식네트워크의 구성요소와 아키텍처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지식네트워크의 구성요소와 아키텍처에 대한 논의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논점은 지식네트워크의 개념에서, '지식'과 함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네트워크(network)'란 도대체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지식'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라는 개념도 워낙 포괄적이어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특히 네트워크는 그 외연과 내포가 명확하지 않은 대표적인 개념 중의 하나다. 간혹 인간만사 모든 것이 다 네트워크로 설명되는 '개념적 확장(conceptual stretching)'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글의 주제인 지식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를 어떠한 개념적 층위에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까? 지식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라는 말은 일종의 행위자(actor)를 의미하는 것인가? 노드와 허브들이 만들어가는 과정(process)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노드와 허브들을 제약하는 일종의 구조(structure)인가?

일단 지식네트워크의 용례에서 네트워크는 그 전체를 하나의 '행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행위자로서 네트워크를 놓고 보면, 지식네트워크는 노드와 링크의 총합으로서의 네트워크 그 자체가 여타 네트워크와의 관계에서 행위자로서 작동하는 경우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특정한 경계'를 갖는 노드와 링크의 집합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그 자체가 '분석의 단위'이자 '행위의 단위'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세계정치에서 네트워크는 지구 전체에 걸쳐서 균질적으로 존재하는 전일체(全一體)가 아니라, 특정한 하위 네트워크들로 구별해 낼 수 있는 개별 행위자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자로서의 네트워크는 그 실체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네트워크는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노드와 노드들이 연결되어 링크를 만들어 가는 동태적인 '과정'이다. 마뉴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이 네트워크의 속성을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함에 있어서 유연하고(flexible), 규모의 조절이 가능하며(scalable), 재생 가능한(survivable) 실체로서 요약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네트워크가 보여주는 동태적 과정에 주목했기 때문이다.[25]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단 형성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의 구성요소인 노드들의 행위를 제약하는 일종의 '구조'로서 작동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결국 네트워크의 개념은 이상에서 설명한 행위자, 과정, 구조의 세 층위를 모두 동원하여 이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네트워크는 노드들이 연

25) Castells(2004), pp.3~48.

결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아키텍처와 작동 방식을 갖는 '구조'가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네트워크에서 노드와 구조(링크와 네트워크)를 구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네트워크는 노드와 구조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체제(system)'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구성된 네트워크는 21세기 세계정치에서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의 행위자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네트워크를 일종의 '행위자'라고 보는 개념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행위자로서의 네트워크는 개별 노드들과 같이 개체론적으로 파악되는 행위자는 아니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theory, ANT)에 말하는 바와 같이, '자기조직화(autopoiesis)'의 메커니즘을 갖는 일종의 '메타 행위자(meta-actor)' 또는 '행위자-네트워크(actor-network)'라고 할 수 있다.[26]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자-네트워크로서의 지식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의 내용은 무엇인가? 누가 지식네트워크의 노드(또는 허브)를 구성하는가? 21세기 세계정치에서 발견되는 다른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지식네트워크 행위자가 보이는 일차적인 특징은 국가(정부)나 기업 행위자가 아닌 개인이나 민간집단들로 그 노드들이 구성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과 전문가집단, 대학이나 연구소 및 연구재단, 컨설팅회사, 시민단체 등이 지식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

26)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Theory, ANT)'에 대해서는 라투르(Bruno Latour)나 로오(John Law) 등의 연구를 참조. Bruno Latour, *Reassess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John Law and Annemarie Mol(eds.), *Complexities: Social Studies of Knowledge Practices* (Duke University Press, 2002).

요 노드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민간집단 형태의 노드들만이 지식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유일한 종류는 아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정부기관,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등도 참여하여 복합적인 노드들로 이루어진 지식네트워크를 구성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지구 공공정책 네트워크가 바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노드들이 구성하는 지식네트워크의 대표적 사례다. 특히 이렇게 구성된 지식네트워크는 특정 분야에 자신들의 활동영역을 국한시키기보다는 시민사회 영역의 네트워크나 다국적기업들의 금융·무역·생산 네트워크, 그리고 정부 간 네트워크(inter-governmental network)와 밀접한 공조를 이루면서 활동하는 특징을 지닌다.

지식네트워크의 구성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던져야 할 또 하나의 질문은 지식네트워크에서 각 노드들을 엮어내는 링크(link)의 성격과 요소는 무엇인가의 문제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식네트워크를 엮어내는 요소는 다름 아닌 '지식'이라는 변수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식 변수의 나열만으로 네트워킹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지식의 공유를 넘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네트워크 행위자의 구성과 작동을 가능케 하는 링크로서 기능하는가? 다시 말해, 지식네트워크를 네트워크로서 작동하게 만드는 결속메커니즘(bonding mechanism)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그러한 링크의 내용을 관념(ideas)과 이익(interests) 및 제도(institutions)의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관념'을 공유하는 노드들의 네트워크다. 이렇게 관념을 공유하는 지식네트워크는 그 정도에 따라서 단순히 비전이나 구상을 공유하는 차원에서부터 과학적 지식에 대한 신념과 규범 및 가치, 그리고 정체성까지도 공유하는 경우를 떠올릴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관념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식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념의 공유는 지식네트워크를 여타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 행위자와 구별하여 정의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요소이다.

둘째, 이렇게 관념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면 구체적으로 지식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까지도 공유하는 노드들의 네트워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익까지도 공유하는 지식네트워크는 단순히 관념만을 공유하는 지식네트워크보다 노드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강한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관념뿐만 아니라 이익의 중첩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네트워크는 그 작동과정에서 행동네트워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많다.

끝으로, 이익의 중첩이 더욱 활성화되고 그래서 네트워크의 결속이 강화될 경우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형태를 넘어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조직이나 제도로 발전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느슨한 형태의 지식네트워크가 제도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식적인 기구(organization)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여기서 던져 보는 질문은 지식네트워크가 이렇게 제도화되고 더 나아가 공식적인 기구가 된다면 이를 여전히 앞서 논의한 의미에서 본 네트워크라고 부를 수 있느냐의 문제다.[27]

---

27) 이러한 문제는 네트워크를 이 글에서 언급한 모든 종류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제도화를 모두 통칭하는 형태로 그 개념을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노드들 간의 이익을 둘러싼 갈등과 협력이 제도화된 사회(society)나 정체성(identity)까지도 공유되는 공동체(community)보다는 낮은 수준의 비공식적 상호작용의 패턴만을 지칭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향후 지식네트워크 연구가 안게 되는 과제 중의 하나는 체계(system), 사회(society), 공동체(community) 등의 용어와의 대비하여 네트워크가 담으려고 하는 개념적 범위를 좀 더 엄밀하게 다듬는 것이다.

이제 지식네트워크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노드와 링크들이 구성하는 지식네트워크는 어떠한 아키텍처를 가질까? '조직'의 형태와는 달리 네트워크는 대체로 탈집중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네트워크의 개념을 좀 더 넓게 보면, 현재 관찰되는 지식네트워크의 아키텍처가 반드시 탈집중의 형태만을 띠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 아키텍처의 형태를 밝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지식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허브(hub)의 숫자에 따라서 단(單) 허브(mono-hub)형, 다(多) 허브(multi-hub)형, 탈(脫) 허브(hub-bypass)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념형의 논의를 현실의 지식네트워크에 거칠게나마 적용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모델, 맥도널드 모델, 위키피디아 모델 등으로 불러 볼 수 있을 것 같다.[28]

첫째, '마이크로소프트 모델'이다. 이는 전 세계 시장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의 기술표준을 부과하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모델에서 유추한 지식네트워크 모델이다. 이 글에서 제시한 유형화에 따르면, 이 모델은 단(單) 허브형 네트워크로 파악되는 지식생산 모델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은 에릭 레이몬드(Eric Raymond)가 1997년 발표한 「성당과 장터(The Cathedral and the Bazaar)」라는 논문에서 논한 '성당(cathedral) 모델'과 흡사하다.[29] 성당

28) 단 허브형, 다 허브형, 탈 허브형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김상배, 「공개 소프트웨어와 표준경쟁의 세계정치」(2005), pp.365~387; 한편 스톤과 맥스웰은 마이크로소프트 모델, 맥도널드 모델, 경쟁적 협업 모델의 셋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세 번째의 유형을 위키피디아 모델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Stone and Maxwell(eds.), (2005), p.13.

29) Eric S. Raymond, *The Cathedral and the Bazaar: Musings on Linux and Open Source by an Accidental Revolutionary*, revised edition(Sebastopol, CA: O'Reilly, 2001), pp.21~63.

모델은 마치 중세의 성당이 한 사람의 위대한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었듯이, 극소수의 행위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지식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이 모델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대량으로 생산되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판매하는 데 적합한 모델이며, 허브의 대기업이 조직 내에서 완제품을 개발하면 노드의 사용자들은 이에 대한 수정을 가하지 못하는 형태다. 이를 마이크로소프트 모델이라 부르는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이 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텔과 같은 하드웨어 기업과는 연합을 하면서도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과는 R&D 분야의 협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

둘째, '맥도널드 모델'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널드가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데에서 착안된 지식네트워크 모델이다. 주지하다시피 맥도널드는 개별적으로 소유된 거대한 프랜차이즈의 형태로 운영되지만 모든 연구센터들은 공통의 제품과 스타일을 가지고서 통괄되어 세계 어디를 가나 똑 같은 맛의 맥도널드 햄버거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 모델은 앞서의 마이크로소프트 모델보다는 개별 노드에 해당하는 세계 각 지역의 특성을 좀 더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성의 부족이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이 글의 유형화에 다르면, 이 모델은 다(多) 허브형 네트워크로 파악되는 지식생산모델이다. 레이몬드의 성당 모델이 독과점 모델에 가깝다면, 이러한 다 허브형 네트워크는

30) Maureen McKelvey, "The Economic Dynamics of Software: Three Competing Business Models Exemplified through Microsoft, Netscape and Linux", *Economics of Innovation and New Technologies,* 10(2001), p.210.

여러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지식을 생산하는 자유주의적 시장 모델(market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허브의 역할을 하면서 네트워크상의 노드들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지식을 생산하는 혼성 모델(hybrid model)이기도 하다.[31]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반독점 제소를 하는 과정에서 상정되는 미국형 반독점 정책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이러한 모델을 일종의 정책집행의 원형으로 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과도한 독점이 오히려 기술개발을 저해하며 소비자의 편익을 해친다는 논리를 펼쳤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윈도 운영체계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끝으로, '위키피디아 모델'이다. 이는 스톤과 맥스웰이 '경쟁적 협업(competitive collaboration) 모델'이라고 부르는 지식네트워크 모델인데, 그들은 그 사례로서 최소한 표준이 제시되고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이탈리아의 가구산업이나 항공산업을 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네트워크의 전개양상을 고려할 때, 이 모델은 '오프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개발 모델' 정도로 부르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이 글의 유형화에 따르면, 이 모델은 탈(脫) 허브형 네트워크로 파악되는 지식생산 모델이다. 이는 레이몬드가 말하는 '장터(bazaar) 모델'에 가깝다.[32] 장터모델은 허브의 역할을 하는 기업이 없이 마치 장터에서 사람들이 어지럽게 오고가며 거래를 하듯이 지식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에서는 네트워크상의 다양한 노드처럼

31) McKelvey(2001), p.212.
32) Raymond(2001), pp.21~63.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발자 그룹의 존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허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드들이 허브를 바이패스해서 소통하기 때문에 허브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모델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 개발자 - 사용자 그룹에 공표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완제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레이몬드는 공개 소프트웨어인 리눅스가 개발되는 모델을 이러한 장터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꼽고 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의 '대중협업(mass collaboration) 모델'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장터 모델의 대표적 사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서 보면, 현실에서 관찰되는 지식네트워크는 이상의 세 가지 모델 중의 하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1세기 세계정치의 복합적 전개를 고려할 때 이러한 단순 시나리오보다 좀 더 가능성이 큰 것은 세 가지 모델 중에서 둘 이상의 형태가 조합되는 복합적인 아키텍처를 가지게 되는 시나리오다. 새로이 부상하는 지식네트워크가 '위계적인 조직'이 아닌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식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완전하게 수평적이고 탈집중적인 아키텍처만을 취하는 것은 아니고 단 허브형 또는 다 허브형의 아키텍처가 복합되는 모습의 네트워크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세 번째 아키텍처 유형에 속하는 오프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 모델이나 위키피디아의 정보생산 모델조차도 순수한 탈 허브형의 아키텍처를 지니는 소위 '난장(亂場) 모델'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탈 허브형의 '무질서(disorder)' 속에서도 일정한 형태의 '질서(order)'가 자율적으로

창발(emergence)하는, 소위 '집중과 탈집중의 복합모델'의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본 특집호에서 김웅희 교수의 「기술지식 네트워크의 세계정치: 리눅스와 위키피디아의 사례」는 바로 이렇게 지식네트워크가 지니는 복합적 아키텍처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질문은 21세기 지식네트워크가 이렇게 집중과 탈집중의 복합적 아키텍처를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의 문제다. 지식네트워크가 다소 모순적일 수도 있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은 무엇일까? 그러면서도 지식네트워크가 탈집중을 기반으로 하고 집중의 요소가 가미되는 비대칭적 복합 네트워크의 형태로 구성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지식네트워크에서 링크를 구성하는 요소인 '지식' 변수의 성격이나 지식네트워크 부상의 환경이 되는 지구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특히 인터넷의 존재에 특별히 주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지식네트워크의 양축을 이루는 지식 변수와 네트워크 변수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인식이다. 실제로 지구화와 정보혁명의 진전으로 인해서 창출된, 소위 '지식' 변수로 통칭되는 조건이 있었기에 복합적인 아키텍처의 지식네트워크가 부상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을 매개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교환하는 네트워크의 존재가 없었다면 소위 '롱테일(long-tails)'들을 엮어내는 지식네트워크들이 이토록 활성화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33]

---

33) 정보기술과 네트워크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을 탐구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거버넌스: 탈집중 관리양식과 국가의 재조정」, 『한국정치학회보』 35(4) (2001, 겨울), pp.359~376;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제국: 지식/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시각」, 『세계정치』 26(1), (2005, 봄 · 여름), pp.93~120.

4. 지식네트워크의 권력메커니즘

이상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구성된 지식네트워크는 구체적으로 세계정치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볼 때 특히 궁금한 것은 이러한 지식네트워크들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권력 메커니즘이 발휘되고, 세계정치 전반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느냐의 문제다. 다시 말해 지식네트워크가 득세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성격은 무엇이고, 그 권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되는가? 지식네트워크 형태의 새로운 행위자가 출현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권력 분포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 지식네트워크 행위자는 기존의 국민국가나 기업 행위자에 비해서 얼마나 더 힘을 얻는가?

실제로 지식네트워크 행위자는 폭력이나 금력과 같은 전통적인 의미의 물질적 권력자원과는 구별되는 비물질적인 권력자원, 즉 기술, 정보, 지식, 또는 커뮤니케이션 등에 의지한다. 또한 그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도 노드의 속성이나 노드가 보유한 자원이라는 단순한 차원보다는 노드들 간의 관계나 네트워크라는 좀 더 복합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식네트워크가 발휘하는 권력을 단적으로 명명해 보면, '지식기반 네트워크 권력(knowledge-based network power)'[34] 또는 '네트워크 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권력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단위와 과정 및 체제의 세 가지 차원에서

34) 네트워크권력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Castells(2004); David Singh Grewal, *Network Power: The Social Dynamics of Globalization*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김상배, 「네트워크권력의 세계정치: 지구화와 정보화시대 권력변환의 개념화」(근간).

파악하고, 그 연속선상에서 지식네트워크가 발휘하는 권력의 특성과 그 세계정치적 함의를 이해하려고 한다.

첫째, 지식네트워크의 권력은 '단위 차원'에서 작동하는 네트워크 권력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네트워크 권력은 일종의 '네트워크로부터 나오는 권력(power from the network)'이다. 달랑 홀로인 노드가 아니라 여러 노드가 모여서 네트워크 형태로 존재하는 행위자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못한 노드들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력을 말한다. 이는 일종의 행위자로서의 네트워크, 즉 '네트워커(networker)'가 행사하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군(群)' 또는 '집(集)'을 통해서 '세(勢)'를 얻는 권력이다. 소위 '규모의 경제' 효과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서의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권력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네트워커'의 권력에 입각해서 보았을 때 지식네트워크가 행사하는 권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지식네트워크는 정보가 교환되고 지식이 생산되며 정서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의미와 공론의 형성을 통해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렇게 구성된 정치적 접속의 공간에서 지식네트워크는 사람과 지식과 담론을 불러 모으는 일종의 네트워커이다. 또한 지식네트워크는 이러한 공간으로부터 바깥으로 정보와 지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초국적 커뮤니케이션을 발산하는 허브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지식네트워크는 웹사이트, 뉴스레터, 보고서, 기타 출판물 등의 매체를 활용하거나 각종 모임과 회의를 통해서 안과 밖의 노드들을 엮어내는 네트워킹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식네트워크가 유능한 네트워커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생산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매력적인 이야기꾼(story-teller)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들의 생

각을 수용케 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실천을 유도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매력을 발산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식네트워크가 의지하고 있는 권력기반은 남들보다 앞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데 있다.

둘째, 지식네트워크의 권력은 '과정 차원'에서 작동하는 네트워크 권력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네트워크 권력은 일종의 '네트워크상에서 발휘되는 권력(power on the network)'이다. 네트워크상에서 권력은 무조건 노드의 덩치가 크거나 링크의 숫자가 많다고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또는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 사이에서 차지하는 노드의 위치나 기능, 또는 링크의 형태 등으로부터 권력은 비롯된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트워크상에서 '통(通)'하게 하는 권력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권력을 행사하는 노드의 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상이한 네트워크들을 양적 · 질적으로 이어주는 '스위처(switcher)'[35]의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스위처'의 권력에 입각해서 보았을 때, 지식네트워크가 발휘하는 권력은 무엇일까? 행위자로서의 지식네트워크는 다양한 형태의 노드 행위자나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소통을 중재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은 여타 세계정치 행위자들과는 달리 전체 시스템 내에서 지식네트워크

35) 이 글에는 스위처(switcher)를 네트워크상에서 권력을 발휘하는 노드(또는 노드의 집합)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스위처에는 그 역할의 성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하위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의미의 변화가 없이 단순히 상호작동성(interoperability)만을 제공하는 '연결자(connecter)', 둘째, 의미의 변화 없이 호환성(compatibility)만을 제동하는 '교환자(router)', 셋째, 의미를 변화시키면서 상호작동성을 제공하는 '번역자(translater)', 끝으로 의미를 변화시키면서 호환성을 제공하는 '편집자(editor)' 등이 그것이다. 스위처의 개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김상배(근간)를 참조.

가 차지하는 독특한 위상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지식네트워크가 행하는 스위칭은 국가와 국가의 사이에서, 기업과 국가의 사이에서, 또는 정책결정자 그룹과 일반 대중들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국가차원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다룰 수 없는 문제를 중재한다든지, 기업의 사적 이익과 국가 차원의 공적 이익에 조화를 준다든지, 아니면 엘리트와 대중 사이의 소통의 간격을 메워주는 역할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러한 스위처로서의 지식네트워크 행위자는 그 자체가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나 단일 기관이 홀로 수행할 수 없는 복합적인 스위칭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스위칭의 과정에서 지식네트워크가 보유하고 전문지식이나,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실천에서 축적된 평판은 지식네트워크의 지적 권위를 강화하고 신뢰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36]

끝으로, 지식네트워크의 권력은 '체제 차원'에서 작동하는 네트워크 권력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권력은 일종의 '네트워크 자체가 행사하는 권력(power of the network)'이다. 네트워크라는 체제에 상호작용의 규칙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심어 넣는 '프로그래머(programmer)'의 권력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권력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네트워크의 프로그램이 짜이고 나면 네트워크는 그 프로그램의 매뉴얼에 입각해서 작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망(網)' 자체가 행사하는 권력이며, 달리 말해 네트워크에 스며들어 있는 일종의 비인격적(impersonal) 권력이다. 이러한 프로그래머의 권력은 기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일수도 있다.[37]

---

36) Stone(2005), p.93.

37) 프로그래머의 권력은 세 가지 차원에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그래머'의 권력에 입각해서 보았을 때, 지식네트워크가 21세기 세계정치에서 발휘하는 권력은 무엇일까? 지식네트워크는 일종의 '지구적 공론장(global public sphere)'을 형성함으로써 의제를 설정하고 각종 정책적 처방의 규범과 표준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사회화되고 제도화된 관행을 창출하는 권력을 행사한다. 지구적 정책 사안과 관련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 이르는 담론을 주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식네트워크는 다양한 지식을 체계화하고 특정한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 다시 말해 소위 '기술합리성'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식을 배제하고 걸러냄으로써 의제설정과 담론형성을 주도하는 일종의 '메타 권력(meta-power)'을 발휘한다. 일종의 세계정치라는 프로그램의 코드를 입력하는 프로그래머와도 같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나 할까? 또한 이는 미셸 푸코가 말하는 권력/지식(power/knowledge) 또는 생권력(生權力, biopower)을 연상시킨다.[38] 이러한 '프로그래머'로서의 지식네트워크의 권력은 기성 권력의 지배적 담론을 정당화하고 강화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지배담론을 침식하는 대항논리로서 작동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 권력은 21세기 세계정치의 현실에서 지식네트워크가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그 모습

이 행사하는 비의도적 권력으로서의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이다. 둘째는 네트워크의 제도나 법을 정하는 제정자(legislator)의 권력인데, 이는 일종의 '제도적 권력(institutional power)'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네트워크에 기본적인 목적과 철학을 부여하는 건축가(architect)적 권력이다. 이는 탈구조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성적 권력(constitutive power)'과도 일맥상통한다. 프로그래머의 권력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김상배(근간)를 참조.

38) 푸코의 지식권력 개념을 국제적인 맥락에서 적용한 최근의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Wendy Larner and William Walters(eds.), *Global Governmentality; Governing International Spa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4).

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 네트워크 권력을 네트워커와 스위처, 그리고 프로그래머 등으로 구분한 것은 분석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 현실에서 이러한 세 가지 네트워크 권력이 따로따로 작동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실제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세(勢)를 얻는 자가 여타 네트워크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스위칭의 역할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네트워크를 프로그래밍할 개연성도 높다. 게다가 이렇게 프로그래밍된 네트워크는 일종의 '표준(標準, standards)'의 권력으로 행세하면서 더 많은 세(勢)를 결집하게 되는 구조적 강화의 고리를 형성한다.[39]

그런데 이 대목에서 유념할 점은 지식네트워크만이 이러한 네트워크 권력을 발휘하는 유일한 행위자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네트워크 권력의 게임은 기성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던 전통적인 국제정치 세력에게 더욱더 유리한 게임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네트워크가 발휘하는 세계정치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판단이 요구된다. 지식네트워크가 앞서 언급한 지식기반 네트워크 권력에 의지하여 시민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지구적 정책형성 과정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전통세력의 견제와 반발의 움직임도 무시할 수 없다. 21세기 지식공간은 '진공의 공간'이 아니라 비대칭적인 자원의 분포와 담론의 위계를 주어진 전제로 해서 출현하는 '정치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 세력이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던 권력자원을 플랫폼으로 삼아 좀 더 교묘한 방식으로 네트워크 권력을 행사하면

39) '표준'이 행사하는 네트워크 권력 또는 구조적 권력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표준경쟁: 윈텔리즘과 일본의 컴퓨터산업』(한울, 2007).

서 지식네트워크 행위자에 대한 반격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요컨대, 21세기 세계정치의 장에서 기존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측이나 또는 이에 대해서 견제 또는 도전을 제기하는 측 모두에게 네트워크 권력을 행사할 기회는 열려 있다. 다시 말해, 지식과 네트워크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맥락에서 지식네트워크가 유례없는 힘을 얻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찬가지 맥락에서 기존의 국가 행위자들도 지식의 활용과 네트워크화의 과정에서 힘을 얻고 있다. 전자의 지식네트워크가 원래 태생적으로 네트워크적인 실체(entity)를 가진 행위자가 더욱 활성화된 경우라면, 후자인 국가 행위자의 변신은 원래는 노드형의 '조직(organization)'이었던 존재가 네트워킹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누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어떠한 전략에 의해 네트워크 권력게임의 승자가 될 것인가? 기성 권력의 패권 네트워크인가, 아니면 이에 대한 대항세력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인가? 이러한 질문은 향후 지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 연구에서 탐구할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를 위한 첫발은 21세기 세계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의 경합을 복합적으로 엮어서 이해하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발상을 지니는 데 있다.

5. 본 특집호의 구성

본 특집호에는 '지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라는 주제하에 여섯 개의 논문을 수록하였다. 크게 대별해 보면, 과학기술과 지구 생산 분야의 전문지식 네트워크, 외교안보와 국제기구 분야의 정책지식 네트워크, 노인 · 기아 · 인권과 환경 분야의 운동지식 네트워크 등의 세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섯 논문 모두가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해당 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지식네트워크 행위자의 세계정치적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아울러 각 지식네트워크 행위자가 내보이는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와 이들 행위자가 발휘하는 권력 메커니즘의 성격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기술지식 네트워크의 세계정치: 리눅스와 위키피디아의 사례」에서 김웅희 교수는 리눅스와 위키피디아 등에서 발견되는 오픈소스형 기술지식 네트워크를 관념, 이익, 제도의 차원에서 전개되는 표준경쟁의 세계정치라는 시각에서 파악하였다. 김 교수에 의하면 리눅스와 위키피디아는 지구화 시대의 정보산업과 인터넷에서 작동하고 있는 지식패권에 대한 대항담론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소위 윈텔리즘(Wintelism)과 지식인의 권위로 대변되는 기성 지식구조에 대한 도전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리눅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실상(*de facto*) 기술표준 경쟁으로 나타나며, 인터넷에서는 탈근대적 지식생산 모델을 둘러싼 위키피디아의 부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리눅스와 위키피디아를 둘러싸고 부상하는 탈 허브형 지식생산 모델은 '성당 모델'로 대변되는 기존의 제도표준에 도전하는 새로운 제도 모델의 등장을 의미한다. 김웅희 교수는 향후 대중협업을 통한 기술지식 생산방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괄하는 산업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더 나아가 정보화시대의 제도표준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담론과 시장, 그리고 조직의 차원에서 발견되는 한계와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방식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식과 지구 생산 네트워크: 동아시아의 사례」에서 이승주 교수는 199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지구 생산 네트워크를 지식 변수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 교수에 의하면, 지구 생산네트워크는 중요한

지식의 전이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하나의 생산 네트워크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 사이에 지식이 적절하게 공유·배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함 기업이 지구 생산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대국의 제도적 환경과의 친화성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생산 네트워크 내의 지식 전파의 메커니즘이 기함 기업의 정치경제적 특성 및 개별 산업 부문의 산업적 특성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 중심의 지구 생산네트워크는 기함 기업들이 모든 연구와 생산 과정을 주도하면서 제한적으로 아웃소싱하는 폐쇄적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미국 중심의 지구 생산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개방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일본 전자산업의 생산 네트워크가 개방성을 강화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교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지구 생산 네트워크에 있어서 국가적·산업 부문별 차별성은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책지식 네트워크의 세계정치: 외교안보 싱크탱크의 사례」에서 박인휘 교수는 탈냉전기 이후 외교안보 정책지식의 생산 및 국제적 교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싱크탱크의 세계정치를 분석하였다. 최근 정책지식 생산의 주체로 주목받는 싱크탱크는 특정한 자본, 이념, 주체의 수준 등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외부환경과의 링크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박 교수에 의하면, 현재 다양한 '옹호 싱크탱크(advocacy think tank)'가 전 세계적으로 생겨나면서 외교안보 영역의 정책결정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정책지식을 공급하고 있다. 외교안보 영역의 경우 개별 국가의 정책적 선택이 국제정치적 세력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수

성으로 말미암아, 지구적 수준의 관련 지식 교류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싱크탱크의 역할은 최근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최근 동아시아에서도 지역 안보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규범이 생겨나면서 다양한 싱크탱크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네트워크와 지식네트워크: G6/G7과 통화주의의 결합」에서 조동준 교수는 세계경제와 정치의 운영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중의 하나인 G6/G7의 사례를 지식네트워크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조 교수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 석유파동과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세계경제의 혼란은 두 가지 결과를 낳았다. 한편으로 케인즈 경제학이 쇠퇴하고, 통화량 조정을 중시하는 시카고 경제학이 부상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세계경제를 운영하는 메커니즘으로서 G6가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G6는 지식체계 간 경쟁의 장이 되었다. 조 교수의 인식에 따르면, 1970년대 G6에서 주요 쟁점은 고용과 물가안정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케인즈 경제학은 고용해결을 통한 불황 탈피를 권고하는 반면, 시카고 경제학은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실 경제에서도 미국은 케인즈 경제학의 권고를 수용한 반면, 프랑스는 1960년대부터 통화론자의 권고를 수용하면서 미국을 압박했다. 이렇게 G6/G7내부에서 발생했던 쟁점 간 경쟁과 지식체계 간 경쟁은 198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다가 시카고 경제학을 수용한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 이후 해소되었다. 이후 시카고 경제학과 G7의 결합은 현재까지 이어져 G8 네트워크는 통화주의의 정책 권고를 국제사회에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구 시민지식 네트워크: 노인·기아·인권 분야의 사례」에서 정연정 교수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유형 중 하나로서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네트워크의 의미와 특성을 살펴보고 경험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시민사회의 중요한 공통 의제인 인권 관련 이슈들은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형성 도구를 활용하여 지구적 운동지식 네트워크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정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단순한 시민행동을 국가적 단위에서 조직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제 인권 관련 제도적, 법률적 지식 및 지원을 겸비한 실천지식 운동으로 전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단위 역시 확대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 교수는 이러한 변화된 지구 시민사회의 시민참여 행동을 운동지식 네트워크의 핵심 사례로 제시하고, 이들의 지식네트워크를 통한 참여 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활동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다양한 지식네트워크 중 운동지식 네트워크가 갖는 의미를 제시하였다.

「지구 환경정치와 지식네트워크: 중국의 ISO 14001 사례」에서 신상범 교수는 현재 지구 환경정치에서 관찰되는 네트워크 수준의 행위자들을 조사하여 이들을 적절한 기준에 의해 분류하고 비교하고, 이들 중 ISO 14001이라는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면밀히 관찰하였다. 최근 약 20여 년간의 지구 환경정치 양상을 보면 기존의 행위자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로 발전하여 환경정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여 실제 정책참여의 제도화 수준을 높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 교수는 네트워크가 완전히 위계적이지도 않지만 이와 동시에 완전히 무정부적이지도 않은 일종의 중간자적인 조직적 특징에 주목하여, '지구' 환경정치 시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이 '국제' 환경정치 시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 국민국가들의 정부들과 왜 충돌하고 어떻게 상호영향을 미치는지를 중국에서의 ISO 14001을 사례로 하여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신

교수는 현재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지구 환경정치에서 네트워크들은 중요한 행위자로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들 네트워크가 가지는 힘과 영향력이 기존의 국가 중심적 제도나 영향력에 의해 일정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논문 접수일 2008.04.24.
심사 완료일 2008.05.23.

The Global Politics of Knowledge Networks

Kim, Sangba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One of the most typical examples reflecting the transformation of world politics in the 21st century is the rise of global knowledge networks. Indeed, global knowledge networks as new actors are compared to traditional actors such as nation-states in the 19th century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20th century. The rise of knowledge networks is predicated particularly on the diffusion of the Internet, and is increasing its influence on the world politic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The reasons why schola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re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se knowledge network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two inter-related points. On the one hand, the knowledge networks have based on unique architectural and operating principles, which are usually conceptualized as 'horizontal networks', contrasting to 'vertical hierarchy'. On the other hand, they rely on knowledge power as new power resources in world politics.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and types, constitutive elements and architecture, and the power mechanism of global knowledge network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lobal politics of networks' or 'inter-network politics'.

• Keywords

Knowledge, Networks, Power, Informatization, Globalization, the Internet, World Politics